

기증자 이야기

기증자 / 여수 영락교회 김 승 기 목사

들켜 버렸어요. M



우습지만 골수기증을 작정한 것이 언제인지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상대가 나타나면 하면 되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별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아내와 내가 골수기증을 하기로 합의한 것이 아마 익산에 있었을 때인 것 같습니다. 그때는 골수기증에 대한 인지라든지 상식적인



부분들이 많이 퍼져 있지 않기에 아내가 많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 아내를 설득하여 아내도 골수기증을 위한 채혈을 했고 사후에 장기기증을 약속했고, 우리는 맞는 골수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 두 가지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2001년 여름이 되어서 연락이 왔는데 골수가 나와 맞는 수혜자가 있는데 기증이 가능하겠느냐는 전화가 왔습니다.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대답을 했고 코디네이터 선생님이 여수까지 내려 왔습니다. 내려와서 만난 곳이 여수공항 옆에 있는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 그곳은 돼지똥 냄새가 나고 닭똥 냄새, 바닷가 갯벌 냄새가 나는 곳입니다. 그곳 기념관 한 칸에서 채혈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검사에 필요한 양이 모자란다고 채혈을 다시 해갔습니다. 그렇게 빼간 피

만 해도 꽤 될텐데,,,채혈 후 진행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았지만 2001년이 다 지나가고 2002년 봄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었습니다. 수혜자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니면 아무런 일이 없는지를 잘 알 수가 없었지만 기대는 품고 있었습니다.

그 기대는 2002년 여름이 되어서 다시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혜자가 항암치료와 다른 치료를 하느라 시간이 흘렀다고 합니다. 우리교회 교인들 가운데에도 각종 암으로 수술을 하시고 항암치료와 방사선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그들의 아픔을 조금은 볼 수 있었기에 수혜자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고등학교 3학년인 학생이 뇌종양으로 고생하면서 항암투여와 방사선을 받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여름에 많아질 교회의 행사들이 어떻게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를 부목사로 섬기고 있는 몸이라 선뜻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합의가 필요했습니다. 먼저는 담임목사님의 허락이 필요했기에 말씀드렸더니 담임목사님께서는 염려는 하시면서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여름행사와 겹치지 않도록 수술 스케줄을 잡아달라고 하고서 수술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여름행사를 무사히 잘 치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8월에 필리핀으로 단기선교를 나가는 데 많은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말라리아나 풍토병에 대한 예방과 건강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야 했습니다. 또 여러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가족과 담임목사님에게만 말씀드리고 가기로 했기 때문에 들키지 않고 준비하는 일 또한 잘 진행 시켜야 했습니다.

바쁜 여름이 지나고 난 후 가을걷이가 시작되면서 긴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술날짜는 다가왔고 코디네이터 님이 하라는 대로 열심히 따라 했습니다. 내 몸은 이제 더 이상 내 몸이 아니라 한 생명을 책임지고 있다라는 코디네이터 선생님의 말씀을 잘 따른 결과는 살이 찌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술은 간단하게 이루어졌고 옆에서

지켜봐주려는 아내의 의사를 뿌리치고 당당하게(?) 혼자서 수술을 하였습니다. 처음으로 수술실에 들어와 봤고 푸른 수술복을 입은 간호사와 의사들의 모습이 아른거리면서 마취가 되었고 마취 후 숨쉬기를 하면서 깨어났는데 어떤 일이 있었을까? 허리부분의 가벼운 통증과 함께 수술보다도 수술 후 누워 있는 것이 더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파스 같은 붙이는 진통제 그걸로 해서 속이 한참이나 울렁이고 메스꺼웠습니다. 앞으로는 붙이는 진통제는 절대 사절이라 다짐을 했습니다. 골수기증을 앞두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붙이는 진통제 사절하세요. 아픈 것은 별것 아닙니다.

수술 일주일 후에 아내 몰래 테니스를 해봤습니다. 결과는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수술한 자국이 아직 아물지 않은 상태기에 움직임이 둔했습니다. 물론 코디네이터 선생님도 한달은 꼭 참으라고 했는데 몸이 근질거려서 참지 못한 나의 어리석음의 모습을 봤습니다. ^^ 추석을 지내면서도 아픈척하지 않느라 고생했습니다. 수술 후 둘째 주 월요일 내가 좋아하는 축구를 하자고 합니다. '왔다'였습니다. 움직임도 둔하고 땀내기도 어려운데 이 기회에 땀을 실컷 내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임했습니다. 전후반

을 뛰고 나니 시원함이 밀려옵니다. 반면에 피곤함도 밀려옵니다. 수술 후 셋째 주 그동안 참고 있었 던 목욕을했습니다. 시원합니다. 가려워서 혼났는데 수술자국에 있는 핀도 뽑았습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은 1년이 더된 것 같은데 수술후 세달이 되어갑니다. 그간에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골수기증 한 것을 다 알아 버렸습니다. 함께 근무하는 부목사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광고를 해버렸답니다. 이거 낫 뜨거워서 인사를 하시는 교인들의 말에 '괜찮습니다' 만 연발합니다. 골수 기증할 때 첫째 사람들에게 소문나지 않게 하기, 둘째 전혀 아픈 기색을 내지 않기로 다짐을 했는데 그런 다짐을 무색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반면 좋은 것은 교회에서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많고 맛있는 거 사줘서 먹고 아내가 잘해줘서 좋았는데 말 잘 들으며 많이 먹는 바람에 살이 무지 찌서 지금은 살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고가는 일들을 도와주시는 코디네이터 선생님들의 도움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이 회복하라고 회복식을 주셨는데 먹지 못했어요. 철분제도 다 먹지 못하고 아직 봉투 안에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약을 일주일 넘게 먹어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도 철분

제만큼은 엄청 챙겨먹은 거랍니다. 한 20알 정도 밖에 안 남았거든요. 생식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코디네이터 선생님들 여러모로 챙겨주신 것 감사드리는데 정말 바라는 것이 있다면 첫째는 많은 골수기증자들이 나와서 기다리는 환우들 모두가 병이 나았으면 좋겠고, 둘째는 나의 골수를 받은 수혜자께서 70%정도의 생착율이 된다는데 건강이 예전과 같이, 나와 같이 건강하게 회복이 되기를 지금도 기도합니다.

골수은행협회 관계하시는 모든 분들도 건강하세요.

푸른 바다 여수에서

여수영락교회를 섬기는

김승기 목사



기증자 이야기

기증자 / 노희령

소중한 경험



200x년 1x월 나는 어느 때와 다름없이 부친 현혈의 집을 찾았다.

평소 현혈의 집 간호사님과 친분을 쌓았던 바, 별다른

부담 없이 나에게 제안을 하셨다.

“골수기증 신청하실래요?” “네...”

한쪽 팔로는 현혈을 하며 다른 한쪽 팔에서 적은 양의 피를 뽑았다.

이렇게 시작된 골수기증신청 사실이 어느덧 잊혀져가고 있던 200x년 x월, 집에 도착된 우편물을 보고 나는 기증신청 사실을 떠올렸고, 주저함 없이 기증하겠노라고 말씀드렸다.

그리고 흘러가는 말로 부모님께 말씀드렸다.

장형인 간호사님이 나의 코디네이터였고, 손수 직장까지 오셔서 검사를 위한 채혈을 해가셨다. (기증을 마치고 완전히 회복한 지금 아쉬움으로 남는 것은 바로 이때 점심을 대접하지 못한 일이다).

건강검진 및 수술할 병원이 정해져 건강검진을 했고, 두 번의 자가수혈을 위한 현혈을 했다.

기증 일정이 잡히고 수술날짜가 다가올수록 기증한다고 했을 때 주위에서 만류한 주된

원인이었던 고통이 어느 정도의 아픈인가가 무척 궁금했다.

드디어 수술전날 입원을 했는데, 먹을 것과 세면도구들을 준비해 놓으신 것에 감탄했다.

키와 몸무게를 재고, 수술 동의를 작성하고, 샤워하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마침 찾아온 후배와 함께 저녁만찬을 즐겼다. 12시부터는 금식에 들어가 물도 못 마셨다.

수술당일 아침 샤워를 마치고 잠시 누워있는데 반응검사를 한다며 주사를 놓으셨다.

드디어 수술침대로 옮겨 타고 수술실로 들어갔는데 그때 약간 어지러웠다. (이 점은 다른 이들은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음.)

수술실로 들어가서 심호흡 2~3번하고 몽롱해진 후 수술에 들어가 잠에서 깨어나듯이 일어나 채혈해 두었던 피, 두 팩을 생리식염수와 함께 수혈 받았다.

수술한 자리에 모래주머니를 대고 약 6시간 정도를 누워 있었고, 일정 시간마다 진통제를 놓아주셔서 정말 아픔을 느끼지 못했다.

물론 그 다음날 감사패와 함께 멀쩡하게 퇴원했다.

이 지면을 통해 골수은행협회 관계자 여러분들과 장형인, 양성희, 황주연 코디네이터님, 병원의 주치의선생님, 간호사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직장의 원장님, 사무국장님, 동료 선생님들, 생각지도 않았는데 찾아와 주신 선생님들, 특히 지금까지도 괜찮으냐고 물으시는 식당여사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기증자 이야기

기증자 / 육군 중령 남 삼 현

더불어 사는 세상.

지난 5월, 골수은행협회로부터 생각지도 못했던 연락을 받았다. 내 골수를 이식 받을 환자가 있다는 내용이었다. 96년의 어느 날로 거슬러 올라가서의 일이다. 대대장으로 재직하던 중 당시 언론을 통해 전개되었던 성덕바우만 돕기 운동을 지켜보면서 나 역시 푸른 제복을 입고 있는 터라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우리의 작은 관심이 끼쳐가는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 무렵 부대에서 단체로 헌혈을 하게 되었는데, 헌혈을 하는 과정에서 골수기증에 관한 소개를 받게 되었다. 순간 아무 거리낌 없이 내가 할 수만 있다면 기꺼이 동참해야겠다는 의지가 생겼다. 그 자리에서 골수를 기증하겠다는 서약서를 쓰면서 대대원들을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순간 나와 눈을 마주하지 않으려는 몇몇 인원을 발견할 수 있었지만 대다수의 대대원들은 기꺼이 기증 서약서 작성에 동참했었다. 사실 큰 고민 없이 기증의사를 밝혔지만 나와 기증조건이 맞는 환자가 있다는 소식에 기뻐할 겨를도 없이 걱정이 앞선다. 이유인즉슨, 기증조건중의 하나가 40세 이상인 자는 기증이 곤란하다는 기증의사 표명 당시의 상담 내용이 문득 기억이 나서였다. 불혹을 훌쩍 넘겨버린 지금의 내가 과연 기증이 가능



한지에 대한 의문이 생겼지만, 그 의문은 곧 기우로 끝나버렸다. 채혈과 건강검진 결과 기증하는데 전혀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통보 받았기 때문이다.

나의 기증으로 인해 끼쳐가는 한 생명과 그 가족들의 얼굴을 생각해보니 더욱 사명감이 생기고, 결심을 잘했구나라며 속으로 되뇌었다. 아무도 모르게

할 수도 있었지만 막상 이렇게 되다 보니 부모님과 아내에게 얘기를 안 할 수 없었다. 우리나라의 골수기증 현실과 환자들의 애환을 설명 드렸더니, 쉽지 않은 결정을 한 장한 아들이라며 부모님께서서는 더욱 용기를 북돋아 주셨고, “비록 당신 몸은 조금 힘들겠지만,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의 아내라는 게 정말 자랑스러워요”라며 흔쾌히 동의해 준 아내에게 고맙다는 사랑의 말을 이 지면을 통해 다시금 전한다. 수술을 받고 며칠 후 퇴원을 했지만, 나이가 들어서인지 정상적인 몸상태는 아니었다. 약간의 통증을 수반하면서 동적인 일을 하기에는 약간의 무리가 갔지만, 일상생활을 하는데는 별다른 지장은 없었다. 퇴원후 출근을 했더니 부대 전장병으로부터 장한 일을 했다며 보내주시는 격려와 칭찬에 내가 정말 칭찬 받을 만한 일을 했는가라는 씩스름이 앞선다.

게다가 회복기간을 가지라며 부대장님께서 2주간의 휴가를 흔쾌히 배려해주신 덕택에 모처럼의 휴가를 받아 다소나마 몸을 추스를 수 있었다. 회복기간 동안 아내의 지극한 정성 덕택에 사골국물과 민물장어탕을 실컷 먹을 수 있었지만 먹은 지 며칠 되지 않아 비린냄새로 인해 다소나마 고통 아닌 고통

은 있었다. 그래도 아내의 정성인지라고 답게 생각하며 묵묵히 2주를 버티냈다. 지금도 그 당시를 생각하면 입에서 비린 냄새가 나는 것 같아 혼자서 웃음을 짓곤 한다. 중요한 건 나의 골수를 이식 받으신 40대 가장이 하루빨리 병마를 털고 일어나 건강하게 생업에 복귀하여, 밝고 화목한 가정을 다시금 이루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마지막으로 골수를 기증하기까지 많은 배려를 해주신 부모님, 아내, 아이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우리의 작은 관심과 정성이 고통받고 있는 한 생명과 그 가족들에게 큰 희망과 용기를 안겨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의 동참을 기대해 본다.

또한 우리는 사회라는 조직 속에서 혼자 사는 삶이 아닌 더불어 살고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 주기를 당부하면서 이 글을 기증하고자 한다.
감사합니다.



기증자 이야기

기증자 / 류 대 열

생명을 나누는 기쁨



2002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 돌아보면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 기억에 남는 몇가지가 있다. 유일한 취미라고 우기며 꾸준히 하고 있는 헌혈을 연초에 목표했던 만큼 했고, 또 먼 별나라 이야기로만 생각하던 골수기증이라는 것을 했다.

골수기증이 무엇인지도 모르던 내가 어느덧 이런 체험담을 쓰게 된 것이 한편으로는 신기하고 한편으로는 쑥스러울 따름이다. 많은 기증자들께서 환자와 환자 가족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삶을 주기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하셨듯이 나에게도 이러한 작은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선택해 주신 하늘에 감사하고 있다.

1월 말로 기억된다. 거의 한달만에 들른 시골집에 우편물이 하나 도착해 있

었다.

“한국골수은행협회 ??”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우편물을 뜯어 보았다. A4 두장의 안내문..

아~

부끄럽게도 그제서야 기억 저편에 묻어두었던 10개월 전의 일이 생각났다. 자주 가는 헌혈의 집에서 본 골수기증 관련 안내문. 담당 간호사님의 설명을 듣고 이틀정도 고민하고 실시한 골수기증희망자 등록. 이런 일이 나에게도 생가다니...

안내문이라고 표현했지만 내용은 호소문에 가깝다는 느낌이었다. 왜 그럴까? 기증동의의사를 묻는 그 안내문으로 인해 갈등이나 고민은 하지 않았다. 이미 고민은 기증희망자 등록을 할 때 충분히 했고, 기증한다고 했으니 기회가 왔으므로 동의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한편으로는 너무 몰랐기에 흔쾌히 동의했는지도 모르겠다.

다음날 아침,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하지 말란다고 안할 내가 아니라고 하시며 몸 관리 잘하라는 말씀으로 허락을 해주셨다. 협회로 연락을 취했는데 토요일이라 그런지 담당 코디네이터인 장형인 선생님과는 직접 통화를 못하고 월요일경에 기증동의 의사를 밝힐



수 있었던 것 같다.

골수공여 의사를 밝힌 후 두 가지의 걱정 아닌 걱정이 들었다. 하나는 이후의 확인검사과정에서 혹시라도 불일치로 나오면 어떡하나? 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채취일까지 나는 물론 환자 분에게도 아무 일이 없어야 할텐데 ...

골수기증을 위한 준비 과정을 밟으면서 모든 행동에 있어서 예전과는 다르게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신중함이 생겼고, 보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등 여러 가지로 조심하게 되었다. 그리고 책과 인터넷을 통해서, 그리고 코디네이터님의 설명을 통해서 왜 골수이식이 중요한지와 골수기증에 대한 자세한 절차들을 알게 되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직장 동료들이나 학교 선배배들이 잘못된 상식과 편견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골수 채취시 고통이 심하고, 이후에 후유증이 심하다고, 헌혈을 70회 가까이 한 녀석도 아파서 못할 것 같다며 부정적인 의사를 나타냈다. 글썄... 생각의 차이가 아닐까?

골수 채취하는 것이 정말로 참기 힘들 정도로 고통이 심하고 며칠동안 수술 후 통증이 있다하더라도 그 고통이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병상에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환우의 고통에 비할 수 없을 것이며, 생명을 나누는 일인데 그

정도도 없다면 너무 안이한 것이 아닐까?

건강진단을 받고 채혈하는 과정 중에 알게 된 협회 관계자 분들, 병원에 계시는 분들 모두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기쁨 속에 사시는 분들이었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던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해주셨으며 의미를 부여해 주셨다. 다들 열심히하던 모습들이 지금도 생생하다.

모든 준비과정이 원만히 진행되어 2002년 0월 0일 서울소재 모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다. 난생 처음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된다니 기분이 이상했다. 병실에서 골수협회에서 나오신 김원종 과장님과 나정화 선생님을 뵈고 저녁식사를 하며 전반적인 설명을 다시금 듣고 난 후 병실로 올라왔다. 죽을 병 걸려서 온 것이 아니라 살릴 병 걸려서 온 것인데 환자복을 입으려고 하니 좀 당황스러웠다.

채취 전날 밤, 쉽게 잠이 오지 않는다. 정말 골수 이식이 잘 되어서 한 형제가 새 생명을 얻기를 소망했다. 아무리 작은 수술이라고는 해도 수술이라는 생각이 선한 부담감으로 다가온다. 그렇게 이런 저런 생각을 하다가 나도 모르게 잠이 들었다.

골수채취 당일



4시경 담당 간호사께서 링거 주사를 꽂아주며 혈압 등을 확인했고, 6시경에 눈을 뜬 후 간단히 샤워를 했다. 8시가 조금 안된 시간. 드디어 가는구나. 어느 정도의 사전 지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생전 처음으로 수술실로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이 약간의 불안감을 갖게 했다. 병실에서 수술대기실로 옮겨지면서 천장에 있는 형광등을 보니 기분이 묘했다. 그러나 이 불안감도 수술 대기실에서 수술동의서에 직접 서명을 한 후 사라졌고, 수술실로 옮겨지면서 입으로 계속 되뇌었다. “No pain, No gain”

조금이라도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이 나에게 큰 기쁨이었고 한편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큼 건강하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다.

수술실에서 담당의사와 간호사들이 좋은 일 하는 것이라며 힘을 주었고, 혼자 실실 웃고 있는 나를 보며 의아해했다. 부분마취상태에서 골수채취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체질상 문제로 결국 전신마취를 실시하였다. 숨을 몇 번 몰아쉬다가 잠이 들었나보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약간의 한기를 느끼며 눈을 떴다. 12시 30분 쯤 되었나보다. 병실로 향하는데 정신이 없

다. 병실에 도착하니 나정화 선생님과 간병인 한 분이 와 계셨다. 그 때까지는 별 통증이나 느낌은 없었다. 골반 두 곳에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환자분과 그 가족에게 소망과 희망 그리고 생명이 되어줄 골수를 그리고 나에게는 조금 빠근한 느낌과 함께 생명을 나누는데 보탬이 되었다는 뿌듯함이 남았다. 문병을 온 동생과 간단히 농담을 했다. 채취부위가 아픈지 어떤지는 느끼지 못했다. 다만, 채취 부위의 지혈을 위해 지혈용 모래주머니 비슷한 것을 채취 부위에 받치고 똑바로 누워서 최소 3시간 이상을 있어야 한다고 했다. 정말 허리가 아팠다. 게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마취도 서서히 풀리고 허리도 아프고 특히나 배설욕을 참기는 힘들었다 --; 지혈이 늦은 편이라 10시간 정도 지난 후에 앉아 간단히 식사를 하고 침대를 내려왔다. 주사를 맞은 후에 털 문질렀을 때처럼 좀 빠근하고 걷는 것이 부자연스러웠지만, 큰 어려움이나 불편함은 없었다.

마음이 급해서인지 다음날 오전 조금 무리해서 퇴원하기로 했다. 협회측에서 사무국장님, 나정화 선생님, 장형인 선생님, 최경환 님이 오셨으며, 먼 곳까지 바래다 주셨다. 이 글을 빌어 다시금 감사드린다.



추후 또다시 선택받는 기회가 되어 골수기증 요청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할까 생각해본다. 솔직히 쉽게 결정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할 것이다. 아니 해야만 한다. 나에게서는 환자분의 최소한의 희망마저 빼앗을 권리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들의 말 중에 사랑이란 말처럼 빈도가 많은 것도 없다. 그러면서도 사랑이 가지는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기란 쉽지 않고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하기에는 더욱 어렵다.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우리의 작은 실천은 우리 이웃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생명을 나누는 아름다운 일에 동참하셔서 우리의 사랑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골수기증이 헌혈처럼 일반화되어 백혈병으로 고생하는 많은 이들에게 새 생명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선택된 사람이 늘고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도 늘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날이 하루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일이 확산되면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또 하나의 원동력이 되어 우리 사회를 밝게 그려나갈 것이다.

만약 당신이 타인을 위한 비혈연간 골

수기증을 하겠다고 등록을 했으며 훗날 언젠가 당신에게 한국골수은행협회로부터 당신의 선택을 기다린다는 연락이 갔을 때, 모든 조건이 허락하는데 단지 막연한 두려움과 그릇된 사회인식으로 인해 동의를 못하고 머뭇거리시는 것이라면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 당신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골수기증과 관련하여 골수채취시의 고통과 절차의 번거로움 그리고 후유증 등으로 인해 결정을 못하고 힘들어 하겠지만, 환우와 그 가족들은 죽느냐 사느냐를 이야기 하는 것이다. 조금만 입장을 바꾸어 내 가족이 골수이식을 받아야 할 상황이라면 어떻게요? 환자분에게 있어 당신이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디 골수기증등록 당시의 첫마음을 간직하시어 주저함 없이 님의 뜻을 펼치실 것을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내가 환자분과 나는 것이 몸을 살리는 작은 씨앗이었다면

내가 얻은 것은 마음을 살리는 커다란 빛이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고생하시는 골수은행협회 관계자분들에게 이 글을 빌어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병마와 싸우는 환우분들에게 새 생명의 기쁨이 함께 하시길...

기증자 이야기

기증자 / 임지연

소중한 경험



이제 11월도 거의 지나고 있다.
내가 골수를 기증한 지도 벌써 한달이 넘어가고 나의 몸은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있다.

내 생애에 있어서 어쩌면 한번 밖에 없을 지도 모르는 소중한 경험을 하고 난 뒤 나에게 그러한 용기를 주신 하나님과 부모님, 나의 남편에게 감사한다.

골수 기증이라는 것...

참 무섭고 떨리는 일임에는 틀림이 없나보다.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대단하다느니, 정말 어려운 결정이라느니, 심지어는 천사라느니, 인간애가 엄청나다느

니... 등등 많은 찬사의 말을 했기 때문이다.

난 이렇게까지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대단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기 때문이다.

기증을 결정할 때도 군의관이었던 남편의 적극적인(?) 동의 아래 부모님들도 어려움 없이 수락하여 주셨으니 말이다.

기증하기 전 2번의 자가 헌혈과 건강검진을 받는 과정에서 약간의 시간 투자가 필요하였지만 공짜(?)로 그 비싼 건강검진에 간 초음파까지 하게 되니 막상 병원비를 치뤄야 하는 환자가족에게는 미안하지만 나에게서는 득이 아닐 수 없지 않은가..?

다행히도 내가 다니는 직장이 학교인지라 너그러우신 교감선생님께서 30일의 병가를 내도록 먼저 권유해 주셨기에 기증을 하고 난 뒤에도 폭 쉴 수가 있었다.

골수 기증을 한다는 소문이 학교 전체에 퍼지자 곧 엄청나게 많은 질문들이 쏟아졌다.

특히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의 질문은 상상을 초월하리만치 어이없고도 황당했다.

“선생님, 골수가 뇌속에 있나요?” “흰색 물이지요?” “그거 되게 아프다던데...” “척추에서 뽑나요?” “집에서 반대가 없었어요?” 등등...

내가 가르치는 14학급에 들어가 똑같은 설명 14번 반복하고 만나는 선생님들마다 말씀드리고...

암튼 입원하기 전, 이러한 인사치레가 골수를 기증한 것 보다 더 힘들었다.

나중에 퇴원하고 나서는 프린트를(?) 만들어 일괄적으로 나누어 주는게 나을 것 같았다.

입원 기간은 3일이었는데 사실 3일동안 난 너무 편히 쉴 수가 있었다.

아이 낳고 5년만에 꼭 자보았고, 나의 지병(?)인 어깨 결림도 그 기간 동안에는 사라져 버렸다.

전신마취를 하고 채취를 하는거라 아픔이나 통증은 전혀 느끼지 못했다.

오전 8시에 수술실에 들어가 깨어나 보니 11시 30분쯤 되었던 것 같고, 난 벌써 병실에 와 있었다. 마취가 거의 풀리기 시작했을 때에도 진통제를 놔 주셔서 역시 아픔을 느끼지 못했고, 모래주머니를 대고 지혈하는 6시간의 시간도 금방 지나갔다.

그 다음날 약간의 어지러움 때문에 조금 힘들기는 하였지만 별 문제는 없었다.

무엇보다 골수협회 코디네이터 선생님들이 너무 너무 잘 챙겨 주셔서 빵, 과일, 음료 등등 실컷 먹고 재미있는 수도도 떨면서 푹 쉰 기간이었다.

‘사랑의 리퀘스트’ 출연도 잊을 수 없는 사건이다.

덕분에 학교에서도 유명인사가 되었고, TV에도 출연해 10분이나 방영이 되고....

퇴원하고 다시 학교에 나와 학생들에게 많은 말을 하였다.

글쎄... 내 얘기가 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어필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의 마음속에 인간의 생명을 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인간애가 조금 더 자랐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나를 걱정해주신 목사님 그리고 여러분들과, 내게 이런 건강한 신체와 건강한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또한 부모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기증자 이야기

기증자 / 신 봉 식

기분이 좋아져요.



먼저 제가 기증해준 골수로 치료를 받고있는 소녀의 쾌유를 빕니다.

어느 날 골수 협회로부터 날아온 편지 한 장에 처음엔 기뻐어요. 특이하죠? 제게도 이런 기회가 오는구나 하는 생각에 기쁘다는 표현이 맞겠죠, 하지만 막상 결정하려니 힘이 들더군요. 며칠을 생각한 끝에 기증하기로 하고 절차를 밟아 나가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제게 힘이 되어준 소중한 분들, 두분의 형수님과 친구들, 그리고 제게는 가장 소중한 제 여자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거예요.

다들 처음엔 반대하다가도 착한 일(?) 한다는 생각 하나 때문에 반대를 하지 못했죠.

하지만 제 여자친구는 마지막까지 반대를 했었어요.

제 몸에 이상이 생기지나 않을까,,제가 아프지나 않을까,,하는 염려 때문에,,, 제 여자친구는 제게 항상 그래요. 아프

지 말라고,,건강한 몸으로 항상 자기 곁에 있어달라고,,그래서 제가 그런 수술하는걸 반대했었어요.

하지만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 한시도 떠나지 않고 제 곁에서 절 보살펴준 유일한 사람이었어요(지금 간호과 다니거든요^^) 아프지 말라는 말 건강하게 자기 곁에 있어 달라는 말,,정말 듣기 좋은 말이죠?

전 제 여자친구를 위해서라도 아프지 않기로 했어요,,수술 후 마취가 풀리고 수술부위가 아무리 아파도 아픈 내색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 제 여자친구가 슬퍼하거든요,,지금요? 그 애가 아픈 거 싫어한뎡잖아요,,지금은 아무 일 없이 건강하게 잘 살아가고 있답니다,,, 참 얼마 전에 그 애랑 처음 만난지 1년 되는 날이 있었거든요 다들 축하해주세요,,,^^그리고 다들 행복하세요,,그리고 건강하세요,,

그리고 가끔은 뒤를 돌아보면서 남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자그마한 여유를 가지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참고로 골수기증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져요,,^^제겐 그 애랑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고요,,

메리 크리스 마시구요 해피뉴 이일이예요,,^^